

유아의 유능감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조절효과: 유아의 기질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Effects of Young Children's Competence on Mastery Motivation Moderated by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Focus on Temperament Types of Young Children

송지은¹ 신나리²

Ji-Eun Song¹ Nary Shin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in the influence of young children's competence, as determined by their temperament, on mastery motivation.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429 mothers with children aged 3-5.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K-means clustering in SPSS 23.0 and the Process macro Model 2.

Results: Children's temperament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 easy-active temperament, easy-inactive temperament, slow temperament, and difficult temperament. It was confirmed that children's competence directly affected their mastery motivation when they had easy-inactive, slow, or difficult temperament. It was also found that mothers' intrusive control had a direct main effect on object persistence when children had easy temperament, while there was no effect on mastery pleasure.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anxious protection on the pathway from children's competence to object persistence were significant only among children with a slow temperament.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mothers to adapt their parenting behavior to their children's temperament type. The study confirmed partial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in the influence of children's competence, as determined by their temperament, on mastery motivation.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22년 충북대학교 일반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올고운 어린이집 교사

2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binah2009@cbnu.ac.kr)

key words temperament type, mastery motivation, overprotective parenting, competence

I. 서론

유아기는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로, 사물의 탐색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경험을 하며 호기심을 충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점차 주도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도전

을 시도하는 동기가 발달하게 된다. 특히 유아기는 영아기에 비해 자신의 발달 보다 높은 수준의 과제를 빈번하게 경험함에 따라 숙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는 시기로(정미지, 2016), 새로운 과제를 도전하고 지속하려는 노력이 행동으로 나타나 숙달동기의 발달이 시작되게 된다.

Morgan 등(1990)은 숙달동기를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익히려는 노력과 지속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정의하여, 과제를 숙달하는데 필요한 도구적인 측면과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Rothbart와 Jones(1998) 또한 높은 숙달동기를 가진 아동은 과제를 탐색하고 지속하는 경향과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심리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숙달동기는 과제에 대한 인지적 지향과 정서적 표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숙달동기는 생애 초기부터 발달하여, 유아기에 이미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rgan et al., 1990). 유아기 숙달동기의 개인차는 주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오는 개인적 요인과 개인이 속한 환경적인 차원에서 오는 외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숙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내적 요인으로는 유능감, 기질, 연령, 성별이 보고되고 있으며(김린, 2017; 길태영, 2017; 이미리, 2020; 정미지, 2016; Gilmore et al., 2003), 그 중에서 개별적인 유능감은 숙달동기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유능감이란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유기체의 역량으로(White, 1959), 유아기 이전부터 나타나 아동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아동의 유능감은 학업성취 향상과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밝혀져 왔는데(신미성, 최나야, 2016; 안도희, 신민, 2014; 이현지, 2020), 이는 유능감이 높은 아동의 경우 내적 동기가 높고(김영민, 2016; 김정선, 2016; 문병상, 2013; 이현지, 2020), 높은 내적 동기는 다양한 학습전략을 활용하는 등 성취를 증진시키는 행동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이영, 2017; 장희선, 2020). 반면 유능감이 낮은 아동은 상대적으로 성취를 위한 내적 동기와 흥미가 낮은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유미, 류성림, 2010; Gettinger & Seibert, 2002; Jacobs et al., 2002; Zimmerman & Martinez-Pons, 1990). 이처럼 유능감은 숙달동기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유능감과 내적 동기를 주로 학업성취 또는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탐색하였으며, 학령기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은주, 김민규, 2011; 김정선, 2016; 신미성, 최나야, 2016; 안도희, 신민, 2014; 이현지, 2020).

더욱이 유능감이 높은 아동은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숙달동기가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유능함을 발휘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동기는 아동의 유능감이 높을수록 함께 높아지게 된다. 이때 활성화되는 동기는 새롭거나 도전적인 과제를 익히기 위해 능동적인 태도로 임하는 숙달목표가 아닌 유능감을 기반으로 자신의 기량을 과시하려는 수행(performance)이 목표인 경우로(Dweck & Leggett, 1988), 다른 아동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다는 점에서 내적 동기라기보다는 외적 동기에 해당한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과제의 숙달을 목표로 하는 경우와 수행을 목표로 하는 경우 보이는 행동

이 유사하고(김유정, 안선희, 2014), 교육적 상황에서 숙달과 수행을 함께 목표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김아영, 2010), 두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유아의 경우 두 목표를 동시에 고려할 만큼 발달적으로 정교한 능력을 갖추지 않았고, 숙달동기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주목하고 있다(김유정, 안선희, 2014; Chang & Burns, 2005; Harris et al., 2007; Schunk et al., 2020). 따라서 유아기의 내적 동기인 숙달동기를 예측하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유능감은 숙달을 목표로 하는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숙달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유아의 숙달동기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에는 물리적인 환경(임미나, 신나나, 2020), 교사(김성환, 최인수, 2010; 이진주, 2007), 부모(길태영, 2017; 김린, 2017; 김유정, 안선희, 2014; 이미리, 2020; 정미지, 2016)를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숙달동기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가 숙달을 시도하게 하고, 즐거운 경험과 이로 인한 유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Harter, 1978).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민감하고 애정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호기심, 숙달 지속성 및 동기가 발달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길태영, 2017; 이미리, 2020; Hubbs-Tait et al., 2002; Pomerantz et al., 2005).

한편 숙달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으로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들 수 있으며, 과보호 중 어머니의 침해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기 주도적인 숙달 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김린, 2017; MacTurk et al., 1995).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자녀를 필요 이상으로 돕거나 개입하며 과도하게 걱정하고 보호 하는 것으로, 이는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게 한다(박아청, 1998). 이처럼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통제를 받은 자녀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거나 성인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과제에 대한 낮은 목표지향 지속성으로 이어지게 된다(이미리, 2020; 장윤희, 문혁준, 2020; McShane & Hastings, 2009; Wood, 2006; Wood et al., 2007).

이같이 자녀의 행동을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수준으로 침해하는 과보호 행동은 자녀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 않아 자녀의 경험에 대해 지나친 개입이나 관여를 하는 심리적 기제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불안심리에 기인한다(Kiel & Buss, 2011). 이러한 불안에 기초한 과보호 행동은 자녀의 행동을 불필요하고 부적절하게 조절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이라는 점에서 침해적 과보호 행동과 맥을 같이하나, 자녀의 안전을 과도하게 지향하고 스트레스나 위험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최근 정영선과 박경자(2021)는 과보호의 통제적인 측면을 침해와 걱정/보호로 구분하여 개념화한 바 있다. 어머니의 주변 환경에 대한 높은 걱정과 우려로 자녀의 경험을 제한하는 경우, 유아는 도전적인 과제와 다루기 어려운 문제상황을 스스로 해결해보는 경험이 제한되기 때문에 숙달동기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녀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과보호 관련 연구는 대부분 자녀가

발달적으로 요구되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기회를 제한하는 침해적인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녀의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걱정하고 긍정적 경험만을 하도록 하려는 보호적인 양육은 주목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숙달동기와 관계되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통제를 침해적 양육에서 걱정 및 보호적인 양육까지 확장하여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어머니의 과보호를 발달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박아청(1998)에 따르면,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은 보호를 필요 이상으로 제공하는 어머니와 보호를 받는 자녀의 양자 관계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단순히 어머니만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볼 수 없다. 즉, 과보호란 보호자인 부모와 피보호자인 자녀 간의 상호적인 관계에서 구성되게 되므로, 부모의 과보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박아청, 199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의 과보호는 독립적으로 발현되는 양육행동이라기보다는 자녀의 유능감 수준과 상호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유아의 유능감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재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과보호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 특히 개인마다 지닌 독특한 행동양식인 기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과보호와 기질을 함께 탐색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적응성이 낮고(차영희, 2007), 활동성이 높으며(김나희 등, 2012), 접근성이 낮은 자녀를 둔 부모가 과보호적인 양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소언주, 도현심, 2001). 이처럼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 과보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린, 2017; 정미지, 2016; 이미리, 2020; 장윤희, 문혁준, 2020).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질을 구성하는 하위차원별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는 방식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개별 유아가 갖는 고유한 기질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Howard & Hoffman, 2018). 따라서 기질 개념의 전통에 따라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과 같이 개별 유아의 기질을 유형화하고(정세진, 신나리, 2018; 차혜경, 신나리, 2016; 천희영, 1992; Carey, 1972; Gordon, 1981), 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개별 유아의 기질을 Gordon(1981)의 판별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능감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기질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기질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인지적 지향과 정서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숙달동기는 유아기에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로서, 유능감에 따라 달라져 향후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이들 관계에 대한 유아 대상의 연구는 제한적이므로 유아기의 유능감과 숙달동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과보호 중 침해적인 양육행동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고된 가운데 보호적인 양육행동까지의 확장이 요구되며,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에 따라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생애 초기부터 발달하는 자녀의 유능감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과보호가 조절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과보호가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기질을 유형화하여 유아의 유능감과 어머니의 과보호가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기질을 유형화하였고, 유아의 기질유형에 따라 유능감이 숙달동기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어머니의 과보호인 침해 및 걱정/보호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로써 유아의 숙달동기에 대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기질유형별 유능감이 숙달동기(목표지향 지속성, 숙달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과보호(침해, 걱정/보호)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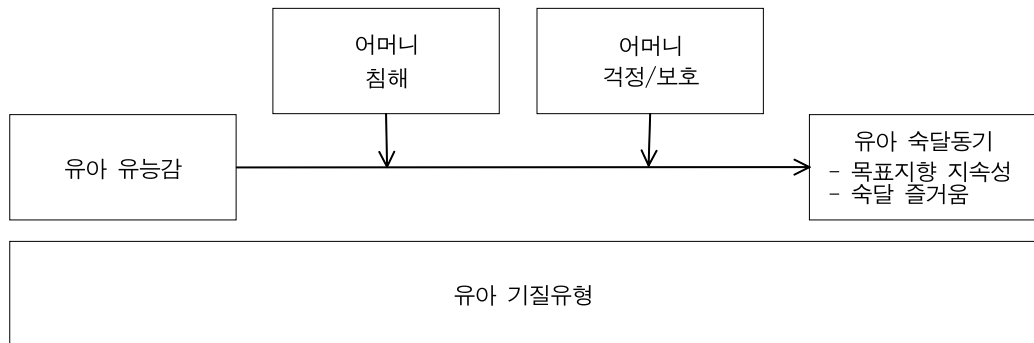


그림 1. 유아의 기질유형별 유능감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조절효과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3-5세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42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아는 전체 429명 중 만 3세 33.8%, 만 4세 31.9%, 만 5세 34.3%으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성별은 남아 50.3%, 여아 49.7%로 남아가 다소 많았다. 출생순위는 외동 37.3%, 첫째 23.8%, 둘째 이상 38.9%로 둘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인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미만 23.8%, 35세~40세 미만 48.2% 40세 이상 28.0%로, 30대 후반의 비율이 높았다($M = 37.17$, $SD = 3.89$).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11.4%, 2·3년제졸 27.1%, 4년제졸 이상 61.5%로, 대졸자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취업 중인 어머니는 66.2%로 미취업모의 두 배가량을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1) 유아의 숙달동기

유아의 숙달동기는 Morgan 등(2019. 8)이 개발한 DMQ18(Dimension of Mastery Questionnaire) 중 ‘유아용 동기 설문지(Preschool Motivation Questionnaire)’를 이미리(2020)가 번안한 것으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평정하는 자녀의 숙달동기는 목표지향 지속성 5문항, 숙달 즐거움 5문항으로, 대표적인 문항으로 목표지향 지속성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계속하려 한다’, 숙달 즐거움은 ‘무엇인가를 해내면 미소를 짓는다’ 등이 있다. 목표지향 지속성과 숙달 즐거움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숙달동기가 높음을 의미하는 본 척도는 각 하위차원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내적합치도 검증 결과 목표지향 지속성은 .86, 숙달 즐거움은 .89로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유능감

유아의 유능감은 Morgan 등(2019. 8)이 개발한 General Competence Compared to Peers Scale을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번안한 후, 아동복지학 전공 교수 3인에 의해 문항과 문맥을 검증받았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어머니가 문항을 이해하고 평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된 해당 척도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뭐든 잘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내적합치도는 .87로 산출되어 신뢰로운 도구로 판단되었다.

3)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Thomas와 Chess(1977)의 기질 이론을 바탕으로 남원희 등(2020)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모용 유아 기질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활동성, 적응성, 접근-회피, 반응강도, 정서성, 주의지속성, 규칙성, 감각 민감성으로 8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Gordon(1981)의 기질유형 판별 시 사용한 하위차원인 활동성, 적응성, 접근성, 반응강도, 정서성에 해당하는 하위차원을 선정하여, 활동성 5문항, 적응성 5문항, 접근-회피 6문항, 반응강도 6문항, 정서성 8문항,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중 접근-회피는 접근성과 회피성이 서로 상이한 개념이므로, 회피성 문항을 역채점하여 접근성으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활동성은 신체 움직임의 활발한 정도를 말하며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움직일 때 조용히 걷기 보다는 달리기나 점프하기를 좋아한다’ 등이 있다. 적응성은 ‘새로운 학원이나 활동에 잘 적응한다’와 같이 새롭거나 변화하는 것에 대한 적응 정도를 의미한다. 접근성은 새로운 사람과 상황에 접근하거나 회피하는 정도로, ‘낯선 사람에게 인사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 나눈다’를 대표 문항으로 들 수 있다. 반응강도는 정서적 표현의 양과 강도로 정의되며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지나치게 흥분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성은 기분이 쉽게 나빠지거나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때를 부리기 시작하면 무엇으로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등이 있다.

어머니가 자녀를 평정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평균 점수를 사용한 각 하위차원의 내적합치도는 활동성 .83, 적응성 .60, 접근성 .86, 반응강도 .70, 정서성 .84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과보호

어머니 과보호는 정영선과 박경자(2021)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척도’의 침해, 응석/허용 및 걱정/보호 하위차원 중 통계적 양육에 해당하는 침해 8문항과 걱정/보호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 침해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도와준다’ 등이 있으며, 걱정/보호는 ‘아이가 실수하지 않게 보호한다’ 등이 있다. 침해와 걱정/보호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내적합치도는 각각 .82와 .68로 산출되어 걱정/보호의 항목 간 일관성이 다소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만3-5세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 42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이메일을 통해 연구 설명서를 받았으며,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웹 설문지로 구현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2021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 까지 진행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이나 결측치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에 참여한 429명의 자료 전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이해도, 소요시간, 웹설문지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총 18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17일부터 5월 21일 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질문지 작성에는 평균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응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문항이 없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어머니의 보고로 측정된 자료이며, SPSS 23.0과 Process Macro v3.3으로 분석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계수 산출과 주요 변인의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유아의 기질유형을 분류하였다. 본 분석은 유아의 기질유형별 유능감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다중가산조절효과(multiple additive moderation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중심화하였으며, Process Macro의 Model 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이창식 등, 2019).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기질유형

기질유형의 기준을 제시한 Gordon(1981)은 개별 아동의 활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정서성을 기준으로 순한 기질, 느린 기질 및 까다로운 기질을 유형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인 순한 기질은 적응성, 접근성과 긍정적 정서가 높고, 반응강도가 낮다. 까다로운 기질은 적응성, 접근성과 긍정적 정서가 낮고, 반응강도가 높다. 한편 느린 기질은 적응성, 접근성과 반응강도가 낮으며, 무엇보다도 활동성이 낮은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느린 기질의 대표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질유형 판별 방법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기질유형 판별 기준

하위차원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
활동성	-	하위 1/3	-
적응성	상위 1/3	하위 1/3	하위 1/3
접근성	상위 1/3	하위 1/3	하위 1/3
반응강도	하위 1/3	하위 1/3	상위 1/3
정서성	상위 1/3	-	하위 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유아의 활동성, 적응성, 접근성, 반응강도, 정서성에 따라 유아의 기질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K-평균 군집(K-means clustering) 방법을 이용한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군집 분석은 가설에 따라 군집의 수를 결정한 후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Burns & Burns, 2008). 따라서 전통적으로 구분되는 3가지 기질유형과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약 35% 정도의 미분류 유형을 포함(Kostelnik et al., 2017), 4개의 군집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유형화된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 1은 활동성, 적응성, 접근성이 높고, 반응강도는 평균 수준이나 부정적 정서가 낮은 특성을 보였다. 군집 2는 적응성과 접근성이 평균 수준이고, 활동성, 반응강도, 부정적 정서가 낮은 특성으로 나타났다. 군집 3은 부정적 정서가 평균 수준이고, 활동성, 적응성, 접근성과 반응강도가 낮은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활동성, 반응강도와 부정적 정서가 높고, 적응성과 접근성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군집 1을 적극-순한 기질, 군집 2을 소극-순한 기질, 군집 3을 느린 기질, 군집 4를 까다로운 기질로 명명하였다(표 2 참조).

표 2. 유아의 기질유형별 특성

(N=429)

구분	군집 1 (n=81) 적극-순한 기질	군집 2 (n=149) 소극-순한 기질	군집 3 (n=98) 느린 기질	군집 4 (n=101) 까다로운 기질	M(SD)
활동성	4.19	2.77	2.80	3.92	3.31(.79)
적응성	3.91	3.69	3.24	3.41	3.56(.45)
접근성	4.02	3.57	2.52	3.13	3.31(.76)
반응강도	3.25	2.77	2.88	3.82	3.13(.64)
정서성	2.19	2.18	2.64	3.21	2.53(.64)

주. 5점 척도의 결과임.

2. 주요 변인의 기술적 특성 및 상관 관계

유아의 유능감과 어머니 과보호가 유아의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아의 기질유형별 숙달동기, 유능감 및 어머니 과보호 간의 기술적인 특성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유아의 유능감의 평균은 3.36($SD = .69$), 목표지향 지속성의 평균은 3.67($SD = .68$)으로 높은 수준이며, 숙달 즐거움은 4.44($SD = .5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침해는 2.50($SD = .54$)이며, 걱정보호는 2.49($SD = .52$)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보고되었다.

유능감은 목표지향 지속성, 숙달 즐거움, 어머니의 과보호 중 걱정/보호에서 정적상관을 보였고, 침해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유아의 유능감은 목표지향 지속성과 숙달 즐거움이 높을수록, 침해적인 양육행동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어머니가 걱정/보호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능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목표지향 지속성은 숙달 즐거움과 정적상관, 어머니의 과보호 중 침해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목표지향 지속성이 높을수록 숙달 즐거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반면 어머니의 침해가 높을수록 목표지향 지속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과보호 중 침해는 걱정/보호와 정적상관을 보여, 어머니의 침해적인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걱정/보호적인 행동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VIF 계수가 1.24에서 1.38로 나타났으며, 왜도 -.99~-.06, 첨도 -.19~1.18로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N=429)

구분	유능감	목표지향 지속성	숙달 즐거움	침해	걱정/보호
유능감	1.00				
목표지향 지속성	.43***	1.00			
숙달 즐거움	.31***	.48***	1.00		
침해	-.11*	-.22***	-.08	1.00	
걱정/보호	.10*	.03	.01	.42***	1.00
평균	3.36	3.67	4.44	2.50	2.49
표준편차	.69	.68	.54	.54	.52
왜도	-.06	-.26	-.99	-.31	-.23
첨도	-.19	.09	1.18	-.10	.15

주. 유능감, 목표지향 지속성, 숙달 즐거움은 5점 척도, 침해, 걱정/보호는 4점 척도임

* $p < .05$, ** $p < .01$, *** $p < .001$.

3. 유아의 기질유형에 따라 유능감과 어머니 과보호가 유아의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유능감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4가지 기질유형별로 조절효과를 각각 검증하였다. 독립변수는 유아의 유능감, 종속변수는 숙달동기인 목표지향 지속성과 숙달즐거움, 조절변수는 어머니 과보호인 침해와 걱정/보호를 투입하였으며, 모든 연속 변수는 다중공선성을 낮추기 위해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의 경우 조절변인인 어머니 과보호가 2개 변인이므로, Process Macro의 Model 2인 다중가산조절효과 모형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유아의 숙달동기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며(길태영, 2017; 안은숙 등, 2010; 이미리, 2020; 정미지, 2016; Gilmore et al., 2003), 유아의 기질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상림, 박창현, 2015; 서수경, 1993; 유주연, 이순형, 2016; 조인주 등, 2020). 어머니의 과보호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장윤희, 문혁준, 2020)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진 바(신수희, 이완정, 2016),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 연령 및 출생순위를 통제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유아의 숙달동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유능감이 목표지향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다중가산조절효과

유아의 기질유형별 유능감이 숙달동기 중 목표지향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다중가산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적극-순한 기질은 유능감과 조절변수인 침해가 목표지향 지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유능감이 높고 어머니의 침해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의 목표지향 지속성 수준이 높았다. 반면, 조절변수인 걱정/보호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 또한 밝혀지지 않아 과보호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극-순한 기질의 모형의 설명력은 29%였다.

둘째, 소극-순한 기질 또한 독립변수인 유능감과 조절변수인 침해가 목표지향 지속성에 각각

정적인 영향과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절변수인 걱정/보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보호의 조절효과는 없었으나, 통제변인 중 연령이 유일하게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 연령이 높아질수록 목표지향 지속성의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모형의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

셋째, 느린 기질의 경우 독립변수인 유능감과 조절변수인 침해가 목표지향 지속성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한 반면 걱정/보호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유능감과 걱정/보호 수준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걱정/보호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느린 기질의 모형의 설명력은 4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넷째, 까다로운 기질은 독립변수인 유능감만이 목표지향 지속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과보호에 해당하는 침해와 걱정/보호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과보호의 조절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에 모형의 설명력은 2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4. 유아의 유능감이 목표지향 지속성에 미치는 기질유형별 영향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다중가산조절효과

변인	<i>B</i>	<i>S.E.</i>	<i>t</i>	<i>R</i> ²	<i>F</i>	
적극-순한 기질 (<i>n</i> =81)	(상수)	3.43	.26	13.42***	.29	3.16**
	연령	.14	.10	1.45		
	성별	.08	.15	.53		
	출생순위	.16	.18	.90		
	유능감(<i>X</i>)	.20	.10	2.00*		
	침해(<i>M</i> ₁)	-.41	.16	-2.60*		
	걱정/보호(<i>M</i> ₂)	.10	.16	.67		
	<i>X</i> × <i>M</i> ₁	.14	.18	.81		
	<i>X</i> × <i>M</i> ₂	-.32	.20	-1.60		
소극-순한 기질 (<i>n</i> =149)	(상수)	3.28	.15	22.56***	.28	6.11***
	연령	.18	.06	3.23**		
	성별	.01	.09	.06		
	출생순위	.09	.10	.82		
	유능감(<i>X</i>)	.44	.08	5.78***		
	침해(<i>M</i> ₁)	-.21	.09	-2.21*		
	걱정/보호(<i>M</i> ₂)	-.04	.11	-.42		
	<i>X</i> × <i>M</i> ₁	-.19	.16	-1.21		
	<i>X</i> × <i>M</i> ₂	.19	.14	1.38		
느린 기질 (<i>n</i> =98)	(상수)	3.29	.19	17.44***	.41	6.79***
	연령	.14	.08	1.88		
	성별	.07	.13	.52		
	출생순위	-.08	.15	-.53		
	유능감(<i>X</i>)	.51	.09	5.80***		
	침해(<i>M</i> ₁)	-.30	.15	-2.06*		
	걱정/보호(<i>M</i> ₂)	.19	.15	1.30		
	<i>X</i> × <i>M</i> ₁	.21	.19	1.07		
	<i>X</i> × <i>M</i> ₂	.48	.23	2.09*		

표 4. 계속

	변인	B	S.E.	t	R ²	F
까다로운 기질 (n=101)	(상수)	3.69	.18	20.36***	.24	3.28**
	연령	-.03	.08	-.43		
	성별	-.10	.13	-.77		
	출생순위	.07	.14	.52		
	유능감(X)	.40	.09	4.45***		
	침해(M ₁)	-.14	.14	-1.01		
	걱정/보호(M ₂)	.16	.14	1.15		
	X × M ₁	-.02	.17	-.12		
	X × M ₂	.08	.19	.42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은 여아가 기준집단, 출생순위는 외동이 기준집단임.

다음으로 느린 기질 유아의 유능감과 어머니 걱정/보호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어머니의 걱정/보호 수준에 따라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유아의 유능감과 목표지향 지속성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 걱정/보호 수준에 상관없이 느린 기질의 유아의 유능감이 높을수록 목표지향 지속성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의 걱정/보호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어머니의 걱정/보호 수준 높아질수록 유능감 수준에 따른 목표지향 지속성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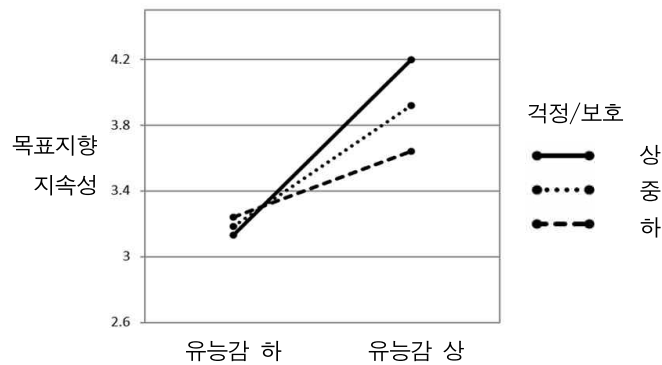


그림 2. 유아의 유능감과 어머니 걱정/보호가 느린 기질 유아의 목표지향 지속성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연속변수로 이루어진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값과 평균값의 $\pm 1SD$ 를 기준으로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별 조건부 효과크기의 경향성 검증과 효과크기에 따른 조절변수의 경향성 검증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느린 기질 유아의 집단별 조건부 효과크기의 경향성 검증과 효과크기에 따른 조절변수의 경향성 검증 결과 어머니의 걱정/보호 수준이 평균 이상인 경우 유아의 유능감이 목표지향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느린 기

질 유아의 경우 어머니의 걱정/보호 수준이 낮았을 때에는 유능감과 목표지향 지속성과의 관계가 없는 반면, 어머니가 평균 이상으로 자녀를 걱정/보호하는 경우 이들 유아의 유능감이 목표지향 지속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느린 기질 유아 집단의 어머니 걱정/보호의 조건값에 따른 유의성 검증

구분	B	S.E.	t	LLCI	ULCI
-1SD	.27	.15	1.82	-.03	.56
M	.51	.09	5.81 ***	.34	.69
+1SD	.76	.15	5.16 ***	.46	1.05

*** $p < .001$.

2) 유아의 유능감이 숙달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다중가산조절효과

유아의 기질유형별 유능감이 숙달동기 중 숙달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다중가산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적극-순한 기질 집단의 경우, 독립변수인 유능감과 조절변수인 침해 및 걱정/보호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효과 외에 상호작용효과와 통제변인의 영향력 또한 모두 유의하지 않아, 적극-순한 기질 유아의 숙달 즐거움을 예측하는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모형의 설명력도 1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소극-순한 기질의 유아는 유능감이 숙달 즐거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보호인 침해와 걱정/보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유능감과 과보호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형의 설명력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16%로 나타났다.

느린 기질의 경우, 소극-순한 기질과 마찬가지로 유능감이 숙달 즐거움에 정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절변수인 침해와 걱정/보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며, 전체적인 모형의 설명력은 22%에 그쳤다. 특히 유아의 연령은 소극-순한 기질과 느린 기질에서 모두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이들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숙달 즐거움의 수준 또한 높았다.

마지막으로, 까다로운 기질은 독립변수인 유능감이 숙달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절변수인 침해와 걱정/보호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의 숙달 즐거움은 유능감이 높을수록 높아졌으나,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18%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표 6. 유아의 유능감이 숙달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다중가산조절효과

변인	<i>B</i>	<i>S.E.</i>	<i>t</i>	<i>R</i> ²	<i>F</i>	
(상수)	4.65	.19	24.88***			
연령	-.07	.07	-1.11			
성별	.05	.11	.47			
출생순위	.14	.13	1.10			
적극-순한 기질 (<i>n</i> =81)	유능감(<i>X</i>)	.07	.07	.97	.15	1.45
침해(<i>M</i> ₁)	-.19	.11	-1.62			
걱정/보호(<i>M</i> ₂)	-.13	.11	-1.18			
<i>X</i> × <i>M</i> ₁	.09	.13	.68			
<i>X</i> × <i>M</i> ₂	-.05	.15	-.31			
(상수)	4.05	.14	28.40***			
연령	.17	.05	3.16**			
성별	-.02	.09	-.27			
출생순위	.09	.10	.89			
소극-순한 기질 (<i>n</i> =149)	유능감(<i>X</i>)	.31	.07	4.16***	.16	3.04**
침해(<i>M</i> ₁)	.13	.09	1.45			
걱정/보호(<i>M</i> ₂)	-.03	.10	-.25			
<i>X</i> × <i>M</i> ₁	-.05	.16	-.31			
<i>X</i> × <i>M</i> ₂	-.01	.14	-.03			
(상수)	4.10	.15	26.78***			
연령	.15	.06	2.41*			
성별	-.12	.10	-1.18			
출생순위	-.07	.12	-.57			
느린 기질 (<i>n</i> =98)	유능감(<i>X</i>)	.22	.07	3.13**	.22	2.75**
침해(<i>M</i> ₁)	-.05	.12	-.42			
걱정/보호(<i>M</i> ₂)	.04	.12	.31			
<i>X</i> × <i>M</i> ₁	-.23	.16	-1.49			
<i>X</i> × <i>M</i> ₂	.19	.19	1.04			
(상수)	4.36	.16	27.16***			
연령	.08	.07	1.13			
성별	.01	.11	.05			
출생순위	-.15	.13	-1.21			
까다로운 기질 (<i>n</i> =101)	유능감(<i>X</i>)	.30	.08	3.85***	.18	2.20*
침해(<i>M</i> ₁)	-.08	.12	-.66			
걱정/보호(<i>M</i> ₂)	.13	.13	1.03			
<i>X</i> × <i>M</i> ₁	.09	.15	.61			
<i>X</i> × <i>M</i> ₂	-.06	.17	-.37			

p*<.05, *p*<.01, ****p*<.001.

주. 성별은 여아가 기준집단, 출생순위는 외동이 기준집단임.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3-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유형별 유능감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유아의 기질유형에 따른 유능감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본 연구의 결과 유아의 기질은 4가지로 유형화되었으며, 느린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 이외에 순한 기질이 두 개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순한 기질유형 모두 부정적 정서가 낮고 적응적이었으나, 적극-순한 기질은 활동적이고 접근성이 높으며 반응에 대한 강도 수준도 일정 수준 이상인 반면 소극-순한 기질은 활동성과 반응강도 모두 낮은 편이었다. 이는 유아의 기질을 처음 유형화한 Thomas와 Chess(1977) 이후 기질의 유형을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및 느린 기질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는 전통에 따라 아동의 기질의 분류하면,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아동의 비율이 약 35% 가량으로 나타나는 경향(Kostelnik et al., 2017)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종전의 미분류 기질이 순한 기질의 스펙트럼 내에서 설명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기질유형 판별 시 가장 널리 사용되는 Gordon(1981)의 기준에 따르면, 기질의 하위차원 중 활동성은 느린 기질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하위차원이며, 순한 기질을 구분하는데 기여하지 않는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활동성을 포함하여 군집화한 결과, 활동성이 순한 기질을 좀 더 폭넓게 정의하는데 유용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과 반응강도가 높은 유아는 양육자가 다루기 힘든 행동 특성을 보여 자칫 까다로운 기질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신체 활동량이 많고 정서 표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센 유아라도 새로운 사람과 상황에 대한 접근과 적응을 잘하는 유아의 비율이 18%로 일정 수준을 차지하는바, 실제로 이들 유형의 유아를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떠한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유아의 유능감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숙달동기인 목표지향 지속성과 숙달 즐거움이 개별 유아의 유능감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능감이 높을수록 숙달동기가 높다는 김영민(2016), 김정선(2016), 문병상(2013) 및 이현지(2020)의 결과와 일관되었다. Ryan과 Deci(2002)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인 유능감, 자율성 및 관계성이 충족되었을 때 내적 동기가 증진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유능감도 기본심리욕구 중 하나로서, 그 결과는 자기결정성 이론이 유아기에도 부분적으로 지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능감의 영향력은 유아의 기질과 숙달동기의 유형에 따라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질유형에서 유능감이 목표지향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능감이 숙달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환경에 적응적이면서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표현의 양과 강도 또한 높은 적극-순한 기질 유아에서만 유의하지 않았다. 여기서 적극-순한 기질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능감 수준이 높기는 하였으나 두드러진 수준은 아니며(표 3 참조), 실제로 기질유형 간 유능감의 통계적인 차이도 없었다($F = 1.68, df = 3, p = .17$). 이는 적극-순한 기질의 유아가 유능감 여부와 무관하게 목표하는 과제 수행 중이나 완료 시 긍정적 정서를 유사한 수준

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숙달동기 중 정서적 측면에 기여하는 기질적 특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Morgan 등(1990)은 숙달동기가 생애 초기부터 발달한다고 설명한 바, 유능감 수준이 유사하나 기질적으로 숙달 즐거움 수준이 높은 적극-순한 기질의 유아의 경우, 이후 발달에서 다른 기질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게 되는지 추적하는 등의 탐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느린 기질의 유아는 유능감의 주효과뿐만 아니라 유능감과 걱정/보호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목표지향 지속성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유능감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려는 동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독으로 해석하는 대신 어머니의 중재 맥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과보호 중 침해는 대체로 목표지향 지속성에 주효과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높은 침해 수준이 자녀의 목표지향 지속성을 낮췄다는 김린(2017)과 이미리(2020)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반복적으로 행동을 제한하거나 다소 어려운 과제를 대신해줄수록 자녀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과제를 끝까지 지속하려는 경향이 감소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침해적인 행동을 관찰을 통해 측정된 선행연구와 달리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편향으로 침해 수준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침해가 목표지향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능감과의 상호작용효과 없이 주효과만 발견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침해적인 과보호가 목표 하는 과제를 인지적으로 숙달하려는 내적 동기 발달을 저해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의 경우, 어머니의 침해가 목표지향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숙(2019) 및 소연주와 도현심(2001)의 연구에 따르면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주로 보이는 과보호적인 양육은 자녀에 대한 보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규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시간이 길고, 자신의 선호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예민하고 불규칙한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행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침해적인 양육보다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의 양육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느린 기질의 유아에 한해 유능감이 숙달동기인 목표지향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걱정/보호적인 양육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자극이나 과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기질의 유아의 경우, 어머니가 주변 환경에 대한 염려로 인해 중재나 개입하는 수준에 따라 개별 유아의 유능감이 인지적 숙달동기 발달에 기여하는 정도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느린 기질의 유아를 둔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인 경험을 줄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주변 환경을 통제하는 경우, 유아는 자신의 유능감을 바탕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개인적인 불안으로 인해 걱정/보호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경우 자녀가 새롭게 도전하는 내적 동기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바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자녀가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덜 할 수 있도록 자녀를 보호하고 제한하는 어

머니의 행동이 비록 어머니의 불안에 근거한 양육이지만, 느린 기질의 유아에게는 강압적이지 않게 자신의 유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인의 자녀양육 특성상 부모가 자녀의 학업과 성취에 관심이 많으며, 인지적 발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문무경 등, 2016), 걱정/보호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느린 기질의 자녀가 자신의 보호 또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녀의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어머니가 느린 기질 자녀의 좌절 경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보호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낮은 걱정/보호 수준의 경우, 유아의 유능감 수준이 인지적 숙달동기 발달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조절효과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활동성이 낮고 새로운 사람과 장소에 접근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느린 기질의 유아는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자발성이 발휘될 수 있으므로, 도전적인 과제를 신중하게 제공하는 것이 기질에 적합한 양육행동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느린 기질을 제외한 그 외 모든 기질에서 걱정/보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걱정/보호가 인지적 내적동기 발달에 긍정적으로 공헌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진술된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과보호 양육은 어느 영역에서는 제한적이고 통제적인 반면, 또 다른 영역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수준으로 허용적인 부분이 혼재한다. 이에 정영선과 박경자(2021)는 과보호를 자녀가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것을 걱정하여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으로 통제 또는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침해, 걱정/보호 외에 응석/허용의 3개 차원으로 과보호 영역이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정영선과 박경자(2021)는 어머니의 응석/허용을 발달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양육행동보다는 한국 문화 특성에 맞게 ‘아이가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를 감싼다’,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더라도 혼내지 않는다’와 같이 자녀가 상처받을까봐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지도를 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위로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기존의 과보호 양육 연구(소연주, 도현심, 2001; 정익중, 2012)에서 허용적인 양육을 주로 자녀를 나이보다 어리게 야기 취급을 하여 ‘아이가 옷 입는 것을 도와줄 때가 많다’와 같이 독립성을 저해하는 특성으로 본 것과는 다소 다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숙달동기에 관계된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 중 통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침해와 걱정/보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과보호적 양육행동 중 허용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성숙에 대한 요구 수준은 낮으면서도 자녀를 보살피는 데에는 적극적이기 때문에 과보호적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기저(Kostelnik et al., 2017)와 자녀에 대한 타인의 비난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절한 훈육을 하지 않는 심리적 기저(박아청, 1998)가 자녀의 자율성과 내적 동기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보는 등의 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유능감과 숙달동기는 양방향적 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유아기에 발달된 숙달동기가 이후 아동기의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와 영향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등을 이용하여, 종단적으로 유능감과 숙달동기 간의 상호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유형별 유능감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조절효과를 밝혀, 기질에 따른 효율적인 양육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나희, 박보경, 도현심 (2012).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51-163. <https://doi.org/10.7466/jkhma.2012.30.3.151>
- 김린 (2017). 어머니의 침해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숙달 동기에 미치는 영향: 기질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림, 박창현 (2015). 유아의 기질과 교사효능감 및 교사-유아상호작용이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37-58. <https://doi.org/10.14698/jkce.2015.11.037>
- 김성환, 최인수 (2010). 유아의 연령별(만 4세, 만 5세) 창의성 및 동기와 교사 창의성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382-383.
- 김아영 (2010). **학업 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학지사.
- 김영민 (2016). 자율성 지지와 유능감, 성취목표 및 자기주도학습의 구조적 관계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미, 류성림 (2010).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학습전략 검사결과 비교 연구.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14(2), 217-239.
- 김유정, 안선희 (2014). 유아의 동기 유형: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상호작용과의 관련성. **아동학회지**, 35(4), 123-143. <https://doi.org/10.5723/KJCS.2014.35.4.123>
- 김은주, 김민규 (2011). 청소년들의 유능성과 관계성 및 내재동기가 공부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교육심리연구**, 25(2), 345-365.
- 김정선 (2016). 중학생의 지각된 부모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생의 유능감 수준이 자기결정성동기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길태영 (2017). 어머니의 교육신념이 유아의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원희, 최은실, 윤진영, 최해훈 (2020). 부모용 유아 기질 검사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36-72개월을 대상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12(3), 69-95. <https://doi.org/10.36431/JPE.12.3.4>
- 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연구보고서 2016-21).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797>에서 2022년 1월 26일 인출.
- 문병상 (2013). 수학교과와 내재적 동기와 유능감 신념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교육심리연구**, 27(3), 595-609.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3.
- 서수경 (199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쇼연주, 도현심 (2001).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대학가정학회**, 39(11), 209-222.
- 신미성, 최나야 (2016). 어머니의 학습지원이 아동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 도구적 유능성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5(2), 237-256. <https://doi.org/10.17643/KJCE.2016.25.2.12>
- 신수희, 이완정 (2016).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과보호 행동 탐색 연구: 양육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5), 475-485. <https://doi.org/10.6115/fer.2016.037>
- 안도희, 신민 (2014).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재와 평재의 학업 동기 및 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4(1), 1-16. <https://doi.org/10.9722/jgte.2014.24.1.1>
- 안은숙, 김양은, 양미선 (2010). 전조작기 아동의 완수동기, 자기조절, 퍼즐맞추기 수행 능력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62, 191-211.
- 유주연, 이순형 (2016). 영아의 기질, 영아-교사관계가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4), 93-110. <https://doi.org/10.14698/jkce.2016.12.04.093>
- 이미리 (2020).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 (2017).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다중지능과 학습동기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2(2), 219-246.
- 이진주 (2007). 유아의 창의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창의적 역할수행과 지식 및 내적동기 간의 인과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식, 황연경, 장하영, 유은경 (2019). SPSS, AMO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효과,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청람.
- 이현지 (2020). 부모의 생애목표 기대가 유능감과 관계성, 내재동기를 매개로 중학생의 학교생활 행복감과 수학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미나, 신나나 (2020).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물리적, 심리적 가정환경이 미치는 영향: 유아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매개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1(4), 1-21. <https://doi.org/10.21197/JCEI.11.4.1>
- 장윤희, 문혁준 (2020). 유아의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4(3), 27-51. <https://doi.org/10.5718/kcep.2020.14.3.27>
- 장희선 (2020).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학습동기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학습전략, 인성 차이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649-676.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2.649>
- 정미지 (2016). 3세아의 숙달동기와 기질, 어머니 양육신념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세진, 신나리 (2018). 어머니 양육불안과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녀 기질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5(4), 155-174. <https://doi.org/10.15284/kjhd.2018.25.4.155>
- 정영선, 박경자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아동학**

- 회지, 42(3), 359-370. <https://doi.org/10.5723/kjcs.2021.42.3.359>
- 정익중 (2012). 방임, 과보호, 사교육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4), 255-278. <https://doi.org/10.18023/kjece.2012.32.4.012>
- 조인주, 이현숙, 박혜원 (2020). 한국 아동의 기질과 아동-어머니 기질조화적합성 분석: 성차분석.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111.
- 차영희 (2007).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혜경, 신나리 (2016). 유아의 다중지능과 기질유형이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3), 79-97. <https://doi.org/10.14698/jkce.2016.12.03.079>
- 천희영 (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숙 (2019). 어머니가 지각하는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편식행동 간의 관계: 어머니 양육방식의 매개효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urns, R. P., & Burns, R. (2008). *Business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s using SPSS*. Sage.
- Carey, W. B. (1972). Measurement infant temperament. *The Journal of Pediatrics*, 81(2), 414. [https://doi.org/10.1016/S0022-3476\(72\)80344-5](https://doi.org/10.1016/S0022-3476(72)80344-5)
- Chang, F., & Burns, B. M. (2005). Attention in preschoolers: Associations with effortful control and motivation. *Child Development*, 76(1), 247-263.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5.00842.x>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2), 256-273. <https://doi.org/10.1037/0033-295X.95.2.256>
- Gettinger, M., & Seibert, J. K. (2002). Contributions of study skills to academic competence. *School Psychology Review*, 31(3), 350-365. <https://doi.org/10.1080/02796015.2002.12086160>
- Gilmore, L., Cuskelly, M., & Purdie, N. (2003). Mastery motivation: st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from ages two to eigh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4(4), 411-424. https://doi.org/10.1207/s15566935eed1404_2
- Gordon, B. N. (1981). Child temperament and adult behavior: an exploration of "goodness of i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1(3), 167-178. <https://doi.org/10.1007/bf00709381>
- Harris, R. C., Robinson, J. B., Chang, F., & Burns, B. M. (2007). Characterizing preschool children's attention regulation in parent-child interactions: The roles of effortful control and motiva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25-39. <https://doi.org/10.1016/j.appdev.2006.10.006>
- Harter, S. (1978). Effectance motivation reconsidered: toward a developmental model. *Human Development*, 21(1), 34-64. <https://doi.org/10.1159/000271574>
- Howard, M. C., & Hoffman, M. E. (2018). Variable-centered, person-centered, and person-specific approaches: where theory meets the method.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1(4), 846-876. <https://doi.org/10.1177/1094428117744021>
- Hubbs-Tait, L., Culp, A. M., Culp, R. E., & Miller, C. E. (2002). Relation of maternal cognitive stimulation,

- emotional support, and intrusive behavior during head start to children's kindergarten cognitive abilities. *Child Development*, 73(1), 110-131. <https://doi.org/10.1111/1467-8624.00395>
- Jacobs, J. E., Lanza S., Osgood, D. W., Eccles, J. S., & Wigfield, A. (2002). Changes in children's self-competence and values: gender and domain differences across grades one through twelve. *Child Development*, 73(2), 509-527. <https://doi.org/10.1111/1467-8624.00421>
- Kiel, E. J., & Buss, K. A. (2011). Prospective relations among fearful temperament, protective parenting, and social withdrawal: The role of maternal accuracy in a moderated mediation framework.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7), 953-966. <https://doi.org/10.1007/s10802-011-9516-4>
- Kostelnik, M. J., Soderman, A. K., Whiren, A. P., Rupiper, M. L., & Gregory, K. M. (2017).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박경자, 김송이, 신나리, 권연희, 김지현 옮김). 교문사. (원판 2014)
- MacTurk, R. H., Morgan, G. A., & Jennings, K. D. (1995). The assessment of mastery motivation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R. H. MacTurk & G. A. Morgan (Eds.), *Mastery Motivation: Origins, Conceptualizations, and Applications* (pp. 19-54).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McShane, K. E., & Hastings, P. D. (2009). The new friends vignettes: measuri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hat confers risk for anxious adjustment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6), 481-495. <https://doi.org/10.1177/0165025409103874>
- Morgan, G. A., Harmon, R. J., & Maslin-Cole, C. A. (1990). Mastery motivati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 318-339. https://doi.org/10.1207/s15566935eed0105_1
- Morgan, G. A., Wang, J., Barrett, K. C., Liao, H. F., Wang, P. J., Huang, S. Y., & Józsa, K. (2019, August). *The Revised Dimensions of Mastery Questionnaire (DMQ 18): A manual and forms for its use and scoring*. Retrieved October 17, 2022 from <https://sites.google.com/a/rams.colostate.edu/georgemorgan/mastery-motivation>
- Pomerantz, E. M., Grolnick, W. S. and Price, C. E. (2005) The role of parents in how children approach achievement: A dynamic process perspective. In A. Elliot & C. W. Dweck (Eds.),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pp. 229-278). Guilford Publications.
- Rothbart, M. K., & Jones, L. B. (1998). Temperament, self-regulation, and education. *School Psychology Review*, 27(4), 479-491. <https://doi.org/10.1080/02796015.1998.12085932>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Schunk, D. H., Meece, J. R., & Pintrich, P. R. (2020).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4th ed.). Pearson Higher Ed.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Brunner/Mazel.
-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297-333. <https://doi.org/10.1037/h0040934>

- Wood, J. J. (2006), Parental intrusiveness and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in a clinical sampl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1), 73-87. <https://doi.org/10.1007/s10578-006-0021-x>
- Wood, J. J., Kiff, C. J., Jacobs, J., Ifekwunigwe, M., & Piacentini, J., C. (2007), Dependency on elementary school caregivers: The role of parental intrusiveness and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Psychology in the School*, 44(8), 823-836. <https://doi.org/10.1002/pits.20268>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51-59. <https://doi.org/10.1037/0022-0663.82.1.51>

논문투고 : 22.10.23.
수정원고접수 : 23.03.23.
최종게재결정 : 23.03.29.